

## 6 주민이 으뜸 민관협치도시 관악

# 주민과 공무원이 손을 맞잡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시즌2를 시작합니다.

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 행정.  
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 
생활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구정운영.  
직원들이 현실안주에서 벗어나 부단한 행정혁신으로 발전하는 협치도시.



- 1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운영이 확고하게 자리잡습니다.**
  -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.
  -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기다리지 않고 직접 주민께 다가가서 의견을 듣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정확히 반영합니다.
- 2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이 됩니다.**
  - 주민들이 주도하는 작은 축제들이 마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.
  -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가 꽃 필니다.
- 3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께 봉사합니다.**
  - 부조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,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이 이루어집니다.
  -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통해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지역주민들께 봉사합니다.

